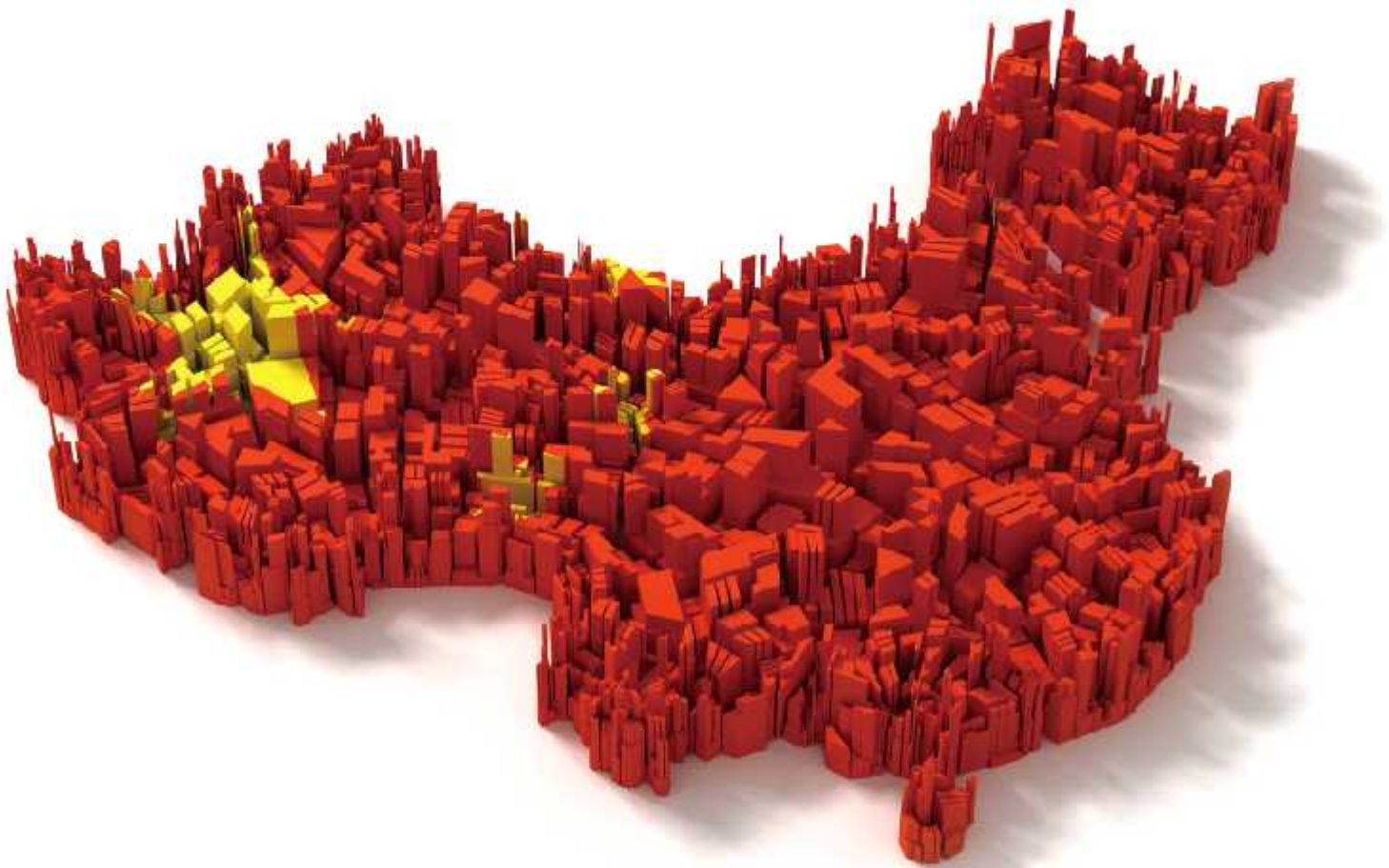


#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



---

#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

---

2016. 6

중국사업단

# 순서

[요약]

## I. 개요 및 주요 내용

1. 제정 과정과 의미
2. 주요 내용

## II. 분야별 경제정책

1. 주요 목표
2. 분야별 정책
  - 1) 성장전략 : 혁신경제(創新經濟) 추진
  - 2) 신형도시화 및 지역발전 전략
  - 3) 생태 및 환경친화적 성장
  - 4) 대외경제 : 개방 확대와 대내외 연계발전
  - 5) '동반(共享)경제' 추진

## III. 시사점과 대응방안

1.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협력 환경 변화
2. 기회 및 협력구조 변화
3. 새로운 기회와 협력 분야

<첨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업종과 중국의 10대 신성장  
육성업종 비교

## [요 약]

- (주요 특징) '16년 3월 확정된 13.5 계획의 핵심 내용은 ▶중고속 성장, ▶혁신(創新)과 내수기반 확대, ▶지역특화 발전, ▶개방 확대
- (성장률) 12.5 계획 기간('11~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하향 조정
- (성장동력) 기존의 '과학기술 육성'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 강화
- (국토개발) 도시권-지역발전을 '중층적으로 특화, 결합'\*
  - \* 권역별 특화 발전, 신형도시화-농촌개발 연계를 통해 도농·국내외 연계를 권역별로 특화한 을 제시
- (능동적·포용적 대외개방) 고수준의 국내-해외 연계형 개방 경제 통해 내수-외수(外需) 협조(協調), 수출입 균형, 해외진출-외자도입 병진,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 (동반(共享) 성장) 공평한 소득 및 기회 분배로 발전 동력 확보 및 지속 발전 도모

### <13·5 계획 주요 내용과 비교>

분야	이슈	주요 정책	12.5 계획 비교	
기본방향	기본방향	- 전면적 중산층(小康) 경제 * 혁신(創新), 협조(協調), 녹색, 개방 동반(共享)	성장속 안정 신성장산업 육성	
	거시정책	성장률 산업고도화	- 중고속 성장, 연간 6.5% 이상 - 산업수준 제고	고속성장(안정적 고속성장)
	경제개혁	정부기능 조정 국유기업 개혁	- 전환, 조정, 제고, 거시조절 강화 - 국유자산관리 개선	- 투자구조 개선 - 국유기업 개혁
5개정책분야	혁신(創新)경제	발전 동력 발전 공간 신성장산업	- 혁신창업·대중창업 - 신수요-공급원 발굴(소비, 공간, 도시화), "인터넷" - "중국제조 2025" 추진	- 제조업 개조 - 전략적 신흥산업 - 정보화 수준 제고
	균형성장	신형도시화 지역발전	- 지역간 협조(協調) - 도농간 협조, 도농 일체화 추진	- 신농촌 건설 - 중서부 우선 개발
	생태발전	생태 보호 에너지 절감	-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절감·자원 효율 이용 - 관련 산업 육성	- 자원절약 및 관리 - 환경보호 강화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대외경제	무역 개방 투자 개방 해외진출 FTA	- 무역·투자 개방 확대 - '일대일로', 개방-국내 연계 개발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 FTA 확대	- 무역구조 및 경쟁력 제고 - 투자 자유화 확대 - FTA 확대
	동반(共享)경제	동반성장	- 빈곤구제, 소득격차 감소, - 교육 제고, 취업·창업 지원, 사회보장 확대, 위생, 인구(2자녀 정책)	- 민생개선 공공서비스 확대 - 교육은 별도 취급

## □ 중국 진출 및 협력 시사점

- (중국 '특수' 종언의 공식화) 고성장 시대 → 중고속 성장시대 전환 및 관련 정책·비즈니스 여건 변화 공식화
  - 중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중국 '특수' 재도래 가능성 종언
  - 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입 둔화세가 이번 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중고속 성장기조하 중국의 시장 재편 및 정책 변화 맞춤형 전략 필요
- (추격·경쟁 가속화) 중국이 육성하려는 신성장산업과 우리의 육성산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양국간 신 성장산업을 둘러싼 경쟁 격화 예상
  - 이에 따라 중국내 수입대체화와 국제시장 경쟁 격화 전망
- (기회 및 협력 구조 변화) 리스크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회 및 협력 확대 요인도 큼
  - 중국의 신 성장산업 육성정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신성장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육성대상 산업은 물론 산업의 '정보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기회가 될 전망
    - 특히 과거의 추격 및 산업보호 경향이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활용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중 협력 여건 개선 기대
  - 중국의 소비기반 성장 전략 역시 관련 업종의 대중 수출 및 진출에 유리한 기회가 될 예정
    - 스마트·녹색·웰빙·안전 분야 소비품, 서비스 분야 기회 확대 기대
    - 특히 소비재 분야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관세 철폐/인하가 집중될 분야로 한중 FTA 발효 후 대중수출 대대적 호전 예상
  - 중국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및 통상 네트워크 정책 강화에 따른 기회와 협력 가능성 확대 예상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一帶一路') 가속화에 따른 중국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커질 전망

## □ 정책 분야별 기회와 리스크

- (성장전략) 한중간 경쟁 격화 가능성이 있으나 신성장산업 육성, 내수기반 확대, 대외개방의 병행추진으로 시장기회 확대 기대
  - (기대 업종) 차세대 신홍산업\*, 전략산업\*\*, 서비스업\*\*\*, 고급 소비재\*\*\*\* 등
    -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및 배터리, 생명과학, 녹색 저탄소 등 업종의 장비, 소재 및 소프트웨어
    - \*\* 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핵기술, 농업기술 등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 \*\*\* 디자인·공정·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및 회계, 유통, 물류 등
    - \*\*\*\* '스마트, 안전, 녹색, 웰빙'분야 소비재
  
- (신형도시화·지역개발) 도시화의 확대와 거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관련분야 시장기회 확대
  - (기대업종) 도시화 및 교통 인프라, 서비스업\*, 소비재
    - \* 건설, 건축 서비스 및 장비·소재, 관련 컨설팅 등
  
-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리스크 보다 기회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기대업종)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과 서비스업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에너지 절감 관련 소재, 제품(단열재 등), 신에너지 소재·부품(태양열, 배터리, 풍력 등)
    - (환경) 환경 관련 소재 및 부품(수처리, 대기오염 정화) 및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대외개방)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에 따른 시장진출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기대업종) 특정 업종보다는 대부분 업종의 수출 및 투자(투자 유치(FDI) 및 투자 진출(ODI))
    - (개방 확대 관련) 대부분 제조업 개방 및 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중국진출 여건 개선
    - (기업 해외진출 관련)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장려되고 있어 중국의 기존 부동산 중심 대한투자가 전분야로 확대될 가능성

- (전자상거래) 대표적 신무역 분야인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정비 및 협력 확대\*로 전자상거래 업종의 중국 진출 및 우리 업체의 전자상거래 활용 여건 개선 전망

\* 13.5규획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화 노력을 명시하고 있고, 한중 FTA 활용 및 통관 협력 등을 통해 대중국 전자상거래 활용/진출 여건 개선 예정

### <13.5 규획 정책분야별 기회와 리스크>

분야	관련 업종	기회	위험/리스크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전략적 신흥산업</li> <li>- 고급 소비재</li> <li>- 서비스·인터넷 업종</li> <li>- 첨단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 수요 확대</li> <li>- 소비수요 확대·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산업 추격</li> <li>* 육성산업 대부분 중복</li> </ul>
신형도시화 · 지역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li> <li>- 인프라</li> <li>- 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종 투자 수요 확대</li> <li>- 소비 확대, 고도화</li> </ul>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감·신에너지</li> <li>- 환경설비, 소프트웨어</li> <li>- 환경·에너지 관련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 환경산업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강화</li> <li>- 정책 급변</li> </ul>
대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li> <li>- 투자진출(특히 서비스)</li> <li>- 투자유치(제조·서비스)</li> <li>- 전자상거래</li> <li>- 3국 공동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수출 여건 개선</li> <li>- 대중 투자유치</li> <li>- 제3국 동반진출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급변</li> <li>- 신형의 외자기업 규제</li> </ul>

자료 : 본문 요약

# I. 개요 및 주요 내용

## 1. 제정 과정과 의미

- (공포) 2016년 3월 5~16일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이하 13차 5개년 계획)가 최종 통과
- <13차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2016~20년) 중국의 기본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됨
- (의미) 이 계획은 2015년 10월 26~29일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기본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내용은 당시의 ‘건의’를 정책으로 공식화 시켰다는 의미를 지님
  -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건의’에서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반면 이번 ‘강요’는 구체적인 정책 지표(수치 목표를 포함) 등 공식적 정책목표 지침을 제시한 것이며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 \* 공산당이 집권하되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건의’의 형태로 문건을 공포함. 따라서 ‘건의’ 문건에서는 목표 수치나 구체적 조치를 적시하지 않으나 주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공식화됨
- (구성) 총 20개 분야 20개 장(章)으로 구성된 방대한 정책 문서로 12차 5개년 계획에 비해 내용이 방대해지고 분량도 대폭 늘어남
  - 12차 5개년 계획은 총 16개 분야 62개 챕터로 구성된 반면 13.5규획은 총 20편 80개 장으로 확대

## 2. 주요 내용

- (주요 특징) 13.5 기획 건의의 특징은 중고속 성장, 혁신(創新) 경제, 중층적 지역특화, 능동적 개방, 동반(共享) 성장 등 5가지
- (성장률) 12.5 기획 기간('11~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하향 조정
  - \* 12.5기획 작성 당시 경기부양 상황을 고려, 고속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강조
- (성장동력) 기존의 '과학기술 진전과 혁신'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 강화
- (국토개발) 권역별 특화 발전, 도농 연계, 국내 지역과 변경 연계를 통합해 도농·국내외 연계를 권역별로 특화한 '중층적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제시
- (능동적·포용적 대외개방) 고수준의 국내-해외 연계형 개방 경제 통해 내수-외수(外需) 협조(協調), 수출입 균형, 해외진출-외자도입 병진,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 (동반(共享) 성장) 공평한 소득 및 기회 분배로 발전의 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12.5 기획('11~15년) 비교) 성장속도, 정책 중점 및 내용 모두 대폭 변화
- (성장 속도) '중고속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성장률 둔화 수용 의지 표명
  - "2020년 GDP 및 1인당소득 2010년의 2배 확대"
  - 연평균 성장률 12.5기획의 7.0%에서 6.5% 이상 성장으로 하향 조정

- (12.5규획 비교) 고속 성장 추진하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이 실시 중임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안정, 각 분야의 안정과 균형을 강조했으나 성장속도 완화로 선회
  - 이러한 '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12.5규획에서는 연평균 GDP 증가율 7.0%, 도시(城鎮) 신규취업 4,500만명, 도시 등기실업률 5%내 통제, 전체 가격 기본적 안정, 국제수지의 점진적 균형, 성장의 질 및 효율 제고 등을 확정
- (정책 과제)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小康)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5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표 참조)
- (5대 목표) 13.5 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핵심목표를 5가지\*로 제시
    - \* 1)중고속 성장
    - 2)보편적 국민생활 수준 및 질(質) 제고
    - 3)국민 소질과 사회문명 수준 제고
    - 4)생태·환경의 질 개선
    - 5)각 분야 제도의 성숙과 정형화
  - (12.5 규획 비교) 12.5규획에서는 10대 세부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5개 분야로 통합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과 통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 \* 12.5규획에서는 금융위기 대응, 개혁개방 추진, 민생 안정, 고속성장 추진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10개 세부 정책과제 제시
      - 1)거시경제 목표
      - 2)농업현대화 및 신농촌 건설
      - 3)현대산업 시스템 발전 및 핵심경쟁력 제고
      - 4)지역 협조 발전 및 도시화 추진
      - 5)자원절약·환경친화형 생태문명 건설
      - 6)과학·교육·인재 전략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
      - 7)공공서비스 시스템 건립
      - 8)문화건설 추진 및 국가 소프트웨어 제고
      - 9)경제체제 개혁
      - 10)호혜적 개방 수준 제고

**<13·5 기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2.5기획 비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속도) 중고속 성장 유지 : 연간 GDP 6.5% 이상 증가</li> <li>○ (혁신 통한 발전) 혁신, 창업, 전체 요소생산성 제고</li> <li>○ (협조(協調)적 발전) 소비기반 확대, 투자효율 제고, 도시화·지역균형 통한 공간발전 최적화, 개방심화 통한 수출입구조 특화·국제수지 균형</li> <li>○ (생활 수준과 질 제고) 취업, 교육, 문화체육, 사회보험, 의료, 주택 등 공공서비스 개서</li> <li>○ (생태환경의 질 개선) : 녹색 및 저탄소 수준 제고. 에너지 개발 효율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속도) 연간 GDP 7% 이상 성장</li> <li>○ 구조조정</li> <li>○ 교육수준 제고</li> <li>○ 자원절약환경보호 강화</li> <li>○ 인민생활 제고</li> <li>○ 사회건설 강화</li> <li>○ 개혁개방 심화</li> </ul>
5개 정책 분야	혁신 (創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제도,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 혁신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수요 확대</li> <li>○ 투자구조 최적화</li> <li>○ 과학기술 혁신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li> </ul>
	협조 (協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농촌간, 지역간 협조적 발전 추진</li> <li>-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균형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병행 추진</li> <li>○ 지역간 협적·상호적 발전</li> </ul>
	녹색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li> <li>○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자원 이용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억제 기제 추진</li> </ul>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혜적 개방전략, 내수-외수 균형, 수출입 균형, 외자도입과 해외진출 병행 추진</li> <li>○ 글로벌 경제 의제 참여 및 역할과 권한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의 폭과 정도 확대, 심화</li> </ul>
	동반 (共享)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에 기반한 성장 추진, 성장의 열매 인민 향유</li> <li>○ 동반 발전을 통한 인민의 성취감 확대, 발전 동력 강화, 인민의 단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li> <li>○ 도시-농초 주민 수입 확대</li> <li>○ 사회관리 강화 및 혁신</li> </ul>

## II. 분야별 경제정책

### 1. 주요 목표

- (목표 지표 수) 목표 분야는 기존 12.5규획과 같은 4대 분야, 세부 목표는 12.5규획보다 5개 늘어난 25개를 지정하여 더욱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시도(목표 지표 상세 내용 표 참조)
- (설정 방향) 설정 목표에서는 13.5규획의 5대 정책 강조점\*이 적극 반영되고 있음
  - \* 13.5규획의 4대 핵심과제 : 중고속 성장, 혁신, 균형, 환경 및 에너지, 동반성장
- (분야별 목표 명칭 수정) 4대 분야별 목표 가운데 기존 12.5규획의 '과학기술교육'과 '인민생활'을 각각 '혁신추진' 및 '민생복지'로 표현을 수정하여 경제혁신과 동반성장 방향성을 강조
- (신규 추가 과제) 노동생산성 및 도시화율 제고(경제발전), 인터넷 육성(혁신추진), 동반성장(민생 지원), 환경보호 확대(자원환경) 등을 새로 추가
  - (경제발전 분야 신규 과제) 전체노동생산율, 호적인구도시화율
  - (혁신추진 분야 신규 과제) 과학기술의 발전 공헌율, 인터넷(고정 광대역 및 모바일 광대역) 등
  - (민생복지 분야 신규 과제) 농촌 빈곤인구 탈 빈곤율, 기본 양로 보험 참가율,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 평균 기대수명 등
  - (자원 환경 분야 신규 과제) 신규 건설용지 규모, GDP당 용수량 하락율, 공기질(도시지역 공기 양호일수, 도시지역 미세먼지 농도 하락율), 지표수질(3급수 이상 비율, 5급수 이하 비율) 등
- (제거 과제) 반면에 12.5규획 중 7개 과제는 13.5규획에서 제거
  - 교육관련 지표(9년 의무교육 보급율, 중고등학교 진학율), 농업 관개 용수 이용 계수,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도시지역 등록 실업율 등

13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 목표					
목표지 ( ) 안은 단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속도 [누계]	구분	
<b>▲ 경제발전</b>					
(1) 국내총생산량(GDP) (만억 위안)	67.7	>92.7	>6.5%	지속	
(2) 전체노동생산율 (만 위안/명)	8.7	>12	>6.6%	신규	
(3) 도시화율	상주인구도시화율 (%)	56.1	60	[3.9]	지속
	호적인구도시화율 (%)	39.9	45	[5.1]	신규
(4) 서비스업 증가치 비중 (%)	50.5	56	[5.5]	지속	
<b>▲ 혁신추진 (* 12.5규획에서는 ‘과학기술교육’으로 표기)</b>					
(5) R&D의 GDP 비중 (%)	2.1	2.5	[0.4]	지속	
(6)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	6.3	12	[5.7]	지속	
(7) 과학기술 발전 공헌율 (%)	55.3	60	[4.7]	신규	
(8) 네트워크 보급률(%)	고정 광대역 가정 보급률 (%)	40	70	[30]	신규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보급률 (%)	57	85	[28]	
<b>▲ 민생복지 (* 12.5규획에서는 “인민생활”로 표기)</b>					
(9) 주민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 (%)	-	-	>6.5	지속	
(10) 생산가능 인구평균 교육연한 (년)	10.23	10.8	[0.57]	지속	
(11) 도시 신규 취업자수 (만 명)	-	-	[>5000]	지속	
(12) 농촌빈곤인구 탈빈곤율 (만 명)	-	-	[5575]	신규	
(13) 기본 양로보험 참가율 (%)	82	90	[8]	신규	
(14)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량 (만 채)	-	-	[2000]	신규	
(15) 평균 기대수명 (세)	-	-	[1]	신규	
<b>▲ 자원환경</b>					
(16) 경작지 보유량 (억 무)	18.65	18.65	[0]	지속	
(17) 신규 건설용지 규모 (만 무)	-	-	[<3256]	신규	
(18) 1만 위안 GDP당 용수량 하락율 (%)	-	-	[23]	신규	
(19)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하락율 (%)	-	-	[15]	지속	
(20) 일회성 에너지 중 비화석에너지 소모 비중 (%)	12	15	[3]	지속	
(21)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락율 (%)	-	-	[18]	지속	
(22) 삼림 발전	삼림 복개율 (%)	21.66	23.04	[1.38]	지속
	삼림 축적율 (억 m <sup>3</sup> )	151	165	[14]	지속
(23) 공기질	도시지역 공기 양호 일수 비율 (%)	76.7	>80	-	신규
	도시지역 미세먼지(PM2.5) 기준 하락율 (%)	-	-	[18]	신규
(24) 지표 수질	3급수 이상 비율 (%)	66	>70	-	신규
	5급 이하 수질 비율 (%)	9.7	<5	-	신규
(25)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소율 (%)	화학수요산소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유황 암모니아질소화물	-	-	[10] [10] [15] [15]	지속

\* 참고 : ① GDP, 전체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비교가격에 따라 계산, 절대수치는 2015년 불변가치로 계산. ② [ ]안 수치는 5년간 성장속도 누계. ③ PM2.5 미달수치 연평균치는 35ug/m<sup>3</sup>임.

\*\* 회색배경(진한글씨)은 13.5규획에서 신규로 설정한 목표

## 2. 분야별 정책

### 1) 성장전략 : 혁신경제(創新經濟) 추진

#### [요약] 13.5 기획 성장전략 분야 과제 개요

- (기본 방향) 13.5기획에서는 성장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경제 추진으로 설정하고 6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 \* 6개 세부 정책과제는 13.5기획 보고서에서 하나의 장(章)을 구성
- (세부 정책과제) 혁신동력 육성으로부터 발전을 위한 제도의 정비, 산업육성, 신수요 창출 등 공급과 수요, 기반 조성에 이르는 과제를 망라
  - (6개 정책과제) 혁신동력 육성, 새로운 발전시스템 구축, 농업현대화,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경제공간 확대, 현대적 인프라 구축
- (12.5기획과 비교) 직전 12.5기획에서는 당시 경기부양 상황을 감안해 경제 리스크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 유지와 산업육성을 강조하는 등 대체로 산업추격 정책 경향을 보인 반면 이번 13.5 기획에서는 독자적인 '혁신경제'개념을 중심에 놓고 분야별 과제를 배치

#### (1) 혁신동력 육성 전략\*

\* 13.5기획의 제2편(6장~10장)에 해당

#### □ 과학기술의 혁신 유도역할 강화

##### ○ 전방분야 혁신 돌파 추진

- (방향) 기초연구 및 공동연계 기술연구 발전에 집중하여 기초 혁신을 추진
- (핵심기술 육성) 차세대 정보통신·신에너지·신소재·항공우주·생명 의약·지능형 제조 등
- (시스템성 기술 개발) 현대농업, 도시화, 환경관리,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 (기초 전방 연구) 우주, 물질구조, 생명 기원, 뇌 및 인지과학 등

○ 혁신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추진체계) 기업의 혁신 역할 강화, 과학-교육 융합 발전 추진, 국가 기술혁신 프로젝트 추진

○ 혁신 기초능력 제고

- 일련의 국가실험실 건립
- (분야) 에너지, 생명, 지구연구 및 환경, 소재, 물리입자, 핵물리, 공간 및 천문, 공정과학 등

○ 지역혁신센터 구축

-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된 중심도시, 국가 자주혁신 시범지역, 국가고신기술사업개발구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련의 파급력 있는 혁신형 지방, 도시, 지역혁신센터를 육성
- 베이징, 상하이에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 혁신센터 구축

<b>&lt;표1&gt; 과학기술혁신 2030 - 중대 프로젝트</b>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 1) 항공용 엔진 및 가스터빈; 2) 심해 공간 터미널; 3)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터; 4) 두뇌과학 및 관련 연구; 5) 국가 네트워크공간 안전; 6) 심해저 공간 탐사 및 공간비행체 서비스 및 유지보수 시스템
중요 프로젝트 : 1) 종식업 독자 혁신; 2) 석탄 청결 및 효율적 이용; 3) 스마트 클라우드; 4) 전자 일체화 정보네트워크; 5) 빅데이터; 6) 스카트 제조 및 로봇; 7) 중점 신소재 연구개발 및 응용; 8) 수도권(京津冀) 종합 환경관리; 9) 건강보호

○ 대중 창업, 만인 혁신(大衆創業, 萬人革新) 추진

- 각종의 주체적 신기술, 신상품, 신업태, 신모델 개발을 장려
  - 창업 및 혁신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 및 중소기업에 저비용, 원활화, 개방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쌍혁신(雙創, 창업 및 혁신)” 시범기지 및 도시를 건설
  - 대중적 창업과 지원 체제 구축
  - 광대역 인터넷 시장 자원, 사회적 수요와 창업 및 혁신 접근성 강화
- 혁신체제 메커니즘 구축 : 혁신을 실제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대한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여 혁신정책 공급을 특화하고 혁신 가치의 충분한 실현을 보장
-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 심화
  - 과학기술성과 전환 및 수익 분배 기제 개선
  - 혁신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 □ 인재육성 전략

- 이를 위해 방대한 인재 대오 구축, 최적의 인재 배치 촉진, 양호한 인력 발전 환경 창조를 추진

## □ 발전 동력을 위한 신 공간(수요) 창출

- 소비 고도화 촉진
- 서비스 소비 확대를 중심에 놓고 정보, 녹색, 패션, 고품질 등 신형 소비를 지원하고 주택, 자동차, 건강양로 등의 주종(主種)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
  -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등을 통한 신소비 모델 육성
  - 소비품 품질 제고 프로젝트,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 협회 역할 강화, 안심하고 편리한 소비 환경 창조
  - 해외소비의 U턴 적극 유도
  - 중요 관광도시에 의탁하여 면세점 배치를 특화하고 국제소비센터 발전을 육성

○ 유효 투자 확대

- 민간 및 기업 투자 장려
- 정부투자의 지렛대 역할 발휘

○ 새로운 수출경쟁력 창출

- 기술, 표준,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경제 경쟁력 제고 고급 장비 수출 추진, 수출상품의 고학기술 함량 및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수출 확대하고 판매후 서비스 및 수리등의 서비스체계 개선
-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 (2) 새로운 발전시스템 구축\*

\* 13.5규획의 제3편(11장~17장) 부분에 해당하며 주요내용은 경제 시스템 개혁에 해당

### □ 기본 경제제도 유지 및 개선

-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종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을 견지
- 국유기업 개혁 추진
  - 독자적인 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지닌 국유 핵심기업을 육성하여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리스크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국가전략목표 수행 지원
  - 상업성 국유기업 국유경제의 활력 증진과 국유자본 기능 확대, 국유자산 증식을 추진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최소화
  - 공익성 국유기업은 시장기제 도입, 비용 통제 강화, 제품 서비스 수준 제고, 경영효율 및 보장능력 제고
  - 국유기업 공사제 주식제 개혁을 가속화
  - 국유기업 전문 경영인제도 건립
- 각종 국유자산관리체제 개선
  - 자본 관리 위주의 국유자산관리 감독 강화하여 자본의 회수를 제고하고 국유자산 유실을 방지
- 적정 수준의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제자본 등의 교차 지분 보유와 상호 융합을 지원
- 비공유제 경제 발전 지원

### (3) 농업현대화 추진\*

\* 13.5규획의 제4편(18~21장) 부분에 해당

#### □ 농산품 안전보장 능력 강화

- 농업 발전방식을 조속히 전환시켜 현대 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품질 및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효율 생산, 제품 안전, 자원 절약, 환경 친화형 농업현대화를 추진
- 농산품 안전보장 강화
  - 양식 생산 능력 보장
  - 농업구조 조정 추진
  - 농촌 1·2·3차 산업간 융합 발전
  - 비용절감 등을 추진
- 현대적 농업경영시스템 구축
  - 적정 규모경영 발전
  - 신형 농업경영 주체 육성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개선
- 농업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
  -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 농업정보화 추진
- 농업 지원 및 보호제도 개선
  - 농업 투자 지속 확대
  - 농산품 가격 및 수매제도 개선
  - 농촌 금융서비스 혁신

## <표2> 주요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 (1)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

식량 중심의 생산지를 중점으로, 식품안전이 보장된 수준 높은 농경지를 건설하고, 농경지 관개시설, 트랙터 도로, 농경지 방풍림(shelter-belt on farmland), 송·배전시설 및 토양 개량 등 경전사업(田间工程)을 전개함. 총 8억 무(亩)의 고수준 농경지 확보를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10억 무 확보에 노력

### (2) 현대화 종자산업

국가 유전물질자원 수집·보존·연구 시스템을 구함. 잡종 우세이용(杂种优势利用)기술, 분자 설계육종기술, 세포공정기술, 염색체 공정기술, 효율적인 종자 번식기술 및 종자정밀가공 기술 등 핵심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

### (3) 수자원 절약 농업

수자원 절약 관개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공사, 배육 품종, 농업기술 또는 관리를 통한 수자원 절약사업을 추진. 동북지역의 수자원 절약 및 양식 증대, 서북지역의 수자원 절약 및 효율증대, 화북지역의 수자원 절약 및 지하수 채취 억제, 남부지역의 수자원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등 지역별 효율적인 규모화 수자원절약 관개사업을 서둘러 실시. 총 1억 무의 고효율 수자원 절약 관개면적을 신규 증설, 관개수 이용계수를 0.55이상으로 제고

### (4) 기계화 농업

(논) 벼 기계파종, 유채 기계파종·수확, 목화솜·사탕수수 기계파종·수확 등 기술의 핵심 애로사항을 극복하며, 고성능 농기와 간편성, 내구성, 에너지 저소모성을 모두 띤 중소형 경작·수확기 및 식물보호기계를 널리 보급함. 500곳의 전과정 기계화 시범현(县)을 설립, 주요 농작물 경작·수확 종합 기계화율 70%로 제고

### (5) 스마트 농업

‘인터넷+’를 기반으로 현대화 농업을 추진함, 농경지 재배, 목축업, 수산업 생산 등에 사물 인터넷망 개선, 전자상거래, 물류, 비즈니스 무역, 금융 등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농업정보 감독관리 분석·조기경보 체제를 구축

### (6) 농산품 품질 안전

농산품 생산 중 이용하는 농약 화학비료량을 축소. 무공해 농산품, 녹색식품, 유기농산품과 지역 특화 농산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농작물 역병, 충해 감독감측 시스템과 녹색방역 실시. 가축용 항균약품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농약 잔류기준 및 식품법 표준을 국제기준과 일치

### (7) 신형농업 경영주체 육성

시범 가정농장, 농업협작사 시범사, 산업화 시범기지과 시범서비스 조직 창건. 현대 농업인재 지지계획 실시. 신형농업의 경영단위 책임자 배양업무 전개, 현대 청년농장경영자, 농촌 실용인재와 신형직업농민 훈련 과정 시행.

### (8) 농촌지역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

‘백현천향만촌(白县千乡万村)’ 농촌 1, 2, 3차 산업융합발전 시범공정 실시, 발전모델과 업무경영방식 농촌산업융합형 산업융합 농촌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 융합 선도구 개발 및 건설

#### (4) 최적화된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 \*

\* 13.5규획의 제5편(22~24장) 부분에 해당

- (기본방향)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하며, 전통산업을 개조 및 제고하여 강한 혁신능력·높은 서비스품질·긴밀한 협력·환경 친화적인 현대적 산업체계를 구축

#### □ 제조강국전략 실시

-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 혁신능력과 인프라 능력을 중심에 놓고 정보기술과 제조업 기술간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제조업을 고급·스마트·녹색·서비스 방향으로 발전시켜 제조업 경쟁력의 제고를 추진
- 공업 기초능력의 전면적 제고
  - “4기(四基)”\* 병목 해소에 주력
    - \* 핵심 기초소재, 핵심 기초부품, 선진 기초기술, 산업기술 기초
  - 이를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산업체인 간 협력, 표준·계량·인증 및 인가·검역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 신형 제조업 발전 가속화
  - 고급 장비 혁신 발전 공정,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 인터넷 구축, 신형 스마트제조 모델 육성, 그린 제조공정, 서비스형 제조업 육성, 제조업 클러스터 개조 및 고도화 등을 추진

○ 전통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 추진

- 중요 제조업 기술개조 제고 공정 추진, 소비품 공급 계획 추진, 기업 인수합병 장려, 전문 중소기업 발전 지원 등

○ 품질 및 브랜드 건설 강화

- 품질 강국 전략 실시, 기업 제품 및 서비스 표준 자기공개 및 감독제도 수립, 품질 감독시스템 개선, 제품 품질 처벌성 배상제도 건립 실시

○ 생산 과잉 완화 노력

- 시장 메커니즘, 경제적 수단, 법적 조치, 행정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달성
- 공업기업 구조조정 보조금을 이용하여 철강, 석탄 등 업종의 과잉생산시설 퇴출을 가속화하고 관련 퇴출기업 후속조치 및 인력 조정등을 추진

<표3> 고급장비 혁신발전 프로젝트

(1)항공우주 장비

항공용 엔진과 가스터빈 핵심 혁신기술을 개발을 통해, 대형 비행기와 간·지선 비행기, 헬리콥터, 다목적항공기(通用飞机) 및 무인비행기의 산업화를 가속화 추진함. 선진 기계설비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민간기 조립역량을 제고함. 신세대·중형(重型) 탑재로켓 및 신형위성 등 공간 플랫폼과 효과적인 재하(载荷) 장치 및 시스템 발전을 통해 우주비행 핵심 소자(元件) 및 부품 핵심기술의 혁신적 응용을 실현

(2)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심해 탐측, 해양 시추작업, 해저자원 개발이용, 해상 작업보장 등 장비 및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 이를 통해 심해 정거장, 대형 해상구조물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추진

### (3)선진 궤도교통 장비

선진적이고 안전한 교통궤도 상품과 정량형·모듈형·시리즈형 상품을 연구·제조. 신세대 고속·대용량 화물재하가능 교통장비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공시스템의 제품수명주기관리 해결역량을 강화함. 이를 토대로 고속열차 국가기술창신중심을 건설

### (4)고급 디지털 수치제어공작기계

정밀성·고속성·유연성을 지닌 수치제어공작기계, 기초제조장비 및 집약형제조시스템을 연구제조. 안정성, 유지력 향상을 중심목표로 고급 수치제어공작기, 베어링(軸承), 정밀회절격자(光柵) 또는 감지기 등 주기능 부품 및 핵심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 (5)로봇 장비

공업로봇, 서비스 로봇, 수술로봇과 군용로봇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고정밀 감속기, 고속·고성능 제어기 및 고성능 서보전동기와 디스크드라이버 등 핵심부속품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각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을 추진

### (6) 현대 농기계 장비

각종 경작환경에 적합한 선진 농기상을 개발, 대형 트랙터, 복식작업기 및 고효율 대형 곡물 수확·파종기, 정밀파종기 등과 같은 식량 작물장비와 목화 및 사탕수수 등 경제작물의 파종과 관련 경지관리를 중점 개발

### (7) 고성능 의료장비

의료 핵의학 영상설비, 초전도 자석결상 시스템 및 양압기 등 진료용 설비와 자동 의료용 가속기, 자동생화학 분석기 및 고중성 자동 DNA 염기서열 분석기 등 체외진단용 설비를 중점 개발함. 의용가속기 등 치료설비 및 심장판막, 심장박동 조정장치, 심장스텐트 및 인공관절 등 삽입 상품을 개발·응용. 이를 통해 중의약의 특정 장점을 보유한 의료기계를 개발 및 응용

### (8)선진 화공 세트장비

현대 석탄화공산업 업그레이드 시범 프로젝트의 형식을 빌려, 석탄 등급분류, 석탄 기화, 정화 합성, 에너지 이용 및 폐수처리 등과 같은 핵심영역을 집중 개발하며 세트형 기술장비의 자주화를 추진. 정유화공 일체화, 석화상품 심층가공 및 핵심설비 심층가공을 통해 장치 조립능력 제고

## □ 전략적 신홍산업 발전전략 지원

- (기본 방향) 전방기술을 고려하고, 산업 변화 방향을 파악하여, 신홍산업 성장 공간을 확대하고, 미래 경쟁 우위를 점유하여 전략성 신홍산업 증가액이 GDP의 15%에 이르도록 육성
- 신홍산업의 버팀대 역할 제고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생명과학, 녹색 저탄소, 고급장비 및 소재, 디지털혁신 등 산업의 발전 촉진
  - 선진 반도체, 로봇트, 추가제조(增材製造), 스마트시스템, 차세대 항공장비, 공간기술 종합서비스시스템, 스마트교통, 정밀의료, 고효율 에너지저장 및 분포식 에너지시스템, 스마트소재, 고효율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가상현실 및 상호영상 등 신홍 전방분야 혁신 및 산업화 촉진
- 전략성 산업 발전 육성
  - 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생명과학, 핵기술 등 일련의 전략 산업 육성
  - 신형 항공기 및 비행체, 차세대 작업플랫폼 및 공중일체화 관측시스템 발전, 양자통신 구축, 합성생명 및 재생의학기술 가속화, 차세대 핵발전장비 및 소형 핵동력 시스템·민간 핵 분석 및 형상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신 우위산업 발전
- 신홍산업 발전을 위한 구조 구축
  - 산업혁신센터, 신기술 생산응용센터를 건설하여 혁신자원 밀집도가 높은 도시를 발전시켜 혁신발전의 근거지로 활용
  - 신홍산업 체인을 조속히 발전시켜 특색있는 신홍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
  - 신홍산업 글로벌 혁신발전 네트워크 계획 추진
- 신홍산업 발전 환경 개선
  - 신기술, 신상품, 신업체, 신모델의 발전의 진입조건, 감독 규정 및 표준시스템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
  - 민생 및 인프라 시설 중요공정에서 혁신제품 및 서비스 활용 확대
  - 국가 전략성 산업 발전기금 설립

## <표4>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행동조치

### (1)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직접회로 산업 시스템과 인공지능, 스마트 하드웨어,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 이동 단말기, 5세대 이동통신(5G), 선진센서 및 웨어러블 설비를 개발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 (2) 생물산업의 배증

유전학(Genomics) 등 생물기술 대규모 응용을 가속화 추진 함. 네트워킹 응용 시범 시스템을 구축. 개성화 의료서비스, 신형약물, 생물육종 등 신세대 생물 기술상품과 서비스의 규모있는 발전을 추진. 이를 통해 유전자 은행, 세포은행 등 신세대 생물기술상품과 서비스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고 유전자 은행, 세포은행 등 기본 플랫폼을 건설

### (3) 공간정보 스마트감지

멀티모드 리모트센싱, 광대역 이동통신, 전세계 베이더우(全球北斗导航卫星)가 핵심인 국가민용공간기초시설 을 가속화 수립하여 글로벌 통신, 재해예방, 자원조사 감독관리, 도시관리, 기상과 환경 감측, 위치서비스 등 서비스 범주의 체계적인 기술토대와 산업화 응용능력을 배양. 이는 베이더우와 위성 리모트 센싱의 상업화 응용을 가속화 추진.

### (4) 축적형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신세대 태양광 에너지, 고효율·고성능의 풍력 에너지, 생물 바이오매스에너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스마트 전력망, 신형 축적에너지 장치 등 핵심 혁신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실현. 분산식 신에너지 기술 종합 응용매체를 개발하여, 관련 기술장치의 규모 있는 발전을 추진

### (5) 고급소재

형상기억합금 및 자기회복재료 등 스마트재료, 그래핀 및 메타물질 등 기능성 나노재료, 인화인듐 및 탄화규소 등 차세대 반도체 재료, 고성능 탄소섬유, 바나듐, 티타늄 및 고온합금 등 신형 구성재료, 분해성재료와 생합성 신재료 등을 대대적으로 개발

### (6)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확대 보급 계획을 실시를 통해 도시 대중교통과 택시에 신에너지 자동차 이용을 장려. 순전동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력배터리 고에너지밀도 기술 또는 자동온도조절기술 등 핵심 혁신기술을 개발. 표준화, 획일화, 상호수용 및 소용형 충전 기초시설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지지정책체제 개선, 전국 신에너지자동차 누적 판매량 500만대 목표 추진.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처리 강화

## □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업 발전 추진

-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조치를 전개하고,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서비스업 발전 환경을 특화하고,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와 가치사슬 연장, 생활성 서비스업의 품질고도화 등을 추진
- 생산성 서비스업 전문화
  - 공업디자인 및 혁신(창의), 공정컨설팅, 비즈니스컨설팅, 법률 및 회계, 현대적 보험, 신용평가, 판매 후 서비스, 검사 및 인증 평가, 인력자원서비스 등 업종 육성
  - 유통체제 개선하여 유통의 정보화, 표준화, 집약화를 통한 현대적 유통 구축
  - 물류인프라 건설하여 3자물류 및 녹색물류, 콜드체인물류, 도농간 배송 등을 발전
  - 고기술 서비스업 혁신공정 실시
  - 생산기업의 서비스단계 전문화 추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산성 서비스업 표준시스템 구축하여 국제화 수준 제고
- 생활성 서비스업 품질 고도화
  - 교육훈련, 건강양로, 문화오락, 체육운동 등 발전 촉진
  - 여행업 발전시켜 여행업의 품질 고도화, 하이난국제여행섬 건설, 생태여행·문화여행·여가여행·산악여행 등 지원
  - 가정서비스업 발전시켜 전업화·규모화·네트워크화 발전 촉진
  - 생활형 서비스업 융합발전 추진
  - 생활형 서비스업 안심행동계획 실시
- 서비스업 발전체제와 정책 개선
  - 민간자본의 시장진입 확대를 겨냥하여 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편, 도시공용서비스 등의 개방을 실시
  -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비즈니스물류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며 서비스개방 확대 종합시범사업 추진
  - 각종 차별적 규정을 철폐하여 민간자본의 의료, 교육, 택아, 양로, 체육 등 분야로의 진입 확대
  - 정부가 서비스조달 범위 확대하여 경쟁적 제3자 서비스 구매 확대

## (5) 네트워크 경제 공간 확대\*

\* 13.5규획의 제4편(25~28장) 부분에 해당

### □ 광범위 고효율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 고속, 모바일, 안전, 유비쿼터스의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하여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광범위한 운용을 추진
- 차세대 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개선
  - 중대형 도시지역에서 초당 1,000조 비트 이상의 접속 능력 제공, 98%의 행정촌에서 광통신 실현,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100조 비트 이상의 접속서비스 능력 구축, 절반 이상의 농촌 가정에서 50조 비트 이상의 접속 능력 제공
- 선진적인 무선 광대역 통신망 구축
  - 4세대 이동통신(4G) 건설, 도시 중심지역 무료고속무선 통신망(WLAN) 구축, 산간·목축·도서지역 통신네트워크 확대
- 정보네트워크 신기술 개발 응용 가속화
  - 5세대 이동통신(5G), 초광대역 핵심 기술연구 추진하여 5G의 상용화를 실현
  - 인터넷협의 제6판(IPv6)의 점진적 고도화를 추진
  - 대수거 및 클라우드컴퓨팅 핵심기술 돌파, 독자통제조작시스템, 고급 공업 및 대형 관리용 소프트웨어, 신흥 영역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추진
- 광대역 네트워크 비용 인하와 속도 제고
  - 민간 자금의 인프라 전신분야 경쟁성 업무 진입 개방하고, 보편적 서비스책임 강화하며, 인터넷 고속화와 비용 감소 추진

## □ 현대적 인터넷 네트워크 산업시스템 발전

-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추진하여 인터넷의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고 생산모델과 조직방식의 혁신을 촉진하여 인터넷화, 지능화, 서비스화, 협동화된 산업발전의 신형태 구축
- 인터넷 응용기지 구축
  - 클라우드컴퓨팅과 사물간인터넷 발전 추진
  - 인터넷 핵심기업의 개방 플랫폼자원을 장려하여 업종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건설 확대
  - 사물간 네트워크 감지시설 및 규획을 추진하여 활용 확대 발전
  - 정보물리학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추진
  - “인터넷+” 표준체계 수립
- 다 영역 인터넷 융합발전 가속화
  - “인터넷+” 중요 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여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모델, 서비스모델, 관리모델 및 공급체인, 물류체인 등 각종 혁신을 추진하여 “인터넷+” 생태시스템 육성
  - 대형 인터넷 기업의 중소기업 및 창업자용 자원 개방을 유도
  - “인터넷+” 신업태 혁신을 촉진하여 자원개방 동반플랫폼을 장려하고 국가 정보경제시범구를 검토
  -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온라인 결합 등 신흥 업태의 발전 촉진

□ 국가 빅데이터(大數據)전략 실시

- 빅데이터를 기초 전략자원으로 삼아 빅데이터 발전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
- 정부 데이터 개방 및 공유 가속화
- 빅데이터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 정보 안전 강화

-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 발전을 함께 추진하여 국가 네트워크 안전 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중요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자원 보호를 강화
- 데이터 자원 안전보호 강화
- 네트워크 공간 관리 실시
- 중요 정보시스템 안전 보장

<표5> 중대 정보화 프로젝트

(1) 브로드밴드 차이나이즈(Broadband Chinese)

대용량 고속 광통신 수송계통을 건설하여, 중서부 지역의 중소도시의 브로드밴드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개선 기초공정을 실시. 국제 수출입 브로드밴드의 통신 설비량을 확대. 4세대 이동통신 및 진보기술 편성 및 수요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브로드밴드 설치를 실현

(2) 사물인터넷의 응용 및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 기초시설과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중대 사물인터넷 응용 시범공정을 건설. 사물인터넷 통합기술의 창의적인 응용과 사용방식을 구성하여 풍부한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를 구축.

(3)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와 빅데이터 센터 배치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건설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해결기능 수준 향상. 제조, 금융, 민생, 물류, 의료 등 중점 업종의 클라우드 어플 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완.

(4) ‘인터넷+’ 행동조치

인터넷 플러스’전략을 시행함에 따라 혁신 사업일자리 창출, 협동제조, 지혜에너지, 일반금융특혜, 민간 서비스, 고효율성 물류, 전자상거래, 간편교통, 녹색생태 및 인공지능과 전자세무, 민간 사법, 교육훈련, 과학보급, 지리정보, 신용 및 문화여행 관련 행동조치를 추진. 융합사업의 지속적인 개발·확장을 추진.

(5) 빅데이터 응용

개방·획일형 플랫폼 건설 하여, 공공 정보집의 점진적인 개방과 공공 기업과 대중의 발굴·이용을 장려. 정부 정비, 공공서비스, 산업발전, 기술 R&D 등 빅데이터 창신 응용을 추진, 구이저우 등 빅데이터 종합시범구 건설을 추진.

(6) 국가행정 정보화

심사비준 감독관리 개선, 신용정보, 공공자원 거래, 가격신고 플랫폼 개선을 통한 국가적 획일화 전자정부 네트워크 건설·응용 가속화, 국가 정보 기초자원창구의 건설·응용 가속화

(7)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기초시설 건설을 지지하여, 중점영역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과 융합운용을 촉진. 항주 등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건설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국제 통로 마련

(8) 네트워크 안전 보장

특정 국가 정보안전 항목 실시를 통해 핵심 정보기초시설 및 중요정보시스템과 기밀관련 정보시스템의 안전보장기능 수준 제고하며, 이의 적용 비중확대를 통해 산업화 수준을 제고. 국가 네트워크 안전 중대 과학기술 항목 실시를 통해, 핵심 마이크로칩, 기초 소프트웨어, 핵심 소자(element)·부품 및 중대 조립기기 등 핵심 혁신 기술 개발하며, 국가 네트워크 공간안전과 비밀보호 기술 보장 체제를 수립

## (6) 현대적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13.5규획의 제7편(29~31장) 부분에 해당

- 인프라시설 건설 공간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스마트하고 녹색인, 상호 소통하는 현대적 인프라시설 건설을 가속화
- 대내외 상호소통(相通)의 운송통로 네트워크 구축
  - 동서·남북·내연외통(內聯外通)의 종합적 운송 통로 구축하고, 해외 연결 통로를 강화하며, 서북·서남·동북의 대외교통 통로 및 해상 실크로드 통로 건설
  - 고품질의 고속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네트워크 가속화, 국가고속도로 네트워크 개선, 지방고속도로 적정 수준 건설, 핵심 및 간선 지선 공항 네트워크 구축
-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및 도시 교통 구축
  - 도시화 지역에서 성간 철도, 지역(교외) 철도 육성 등 다양한 수준의 궤도 교통 건설
  - 도시 궤도교통, 고속 공공교통 등 대용량 공공교통 건설
  - 네트워크 예약 등 정규 교통 발전 촉진
  - 중심도시지역과 대외간선 도로의 신속 연계 구축하고 도시 내외 교통 건설
- 종합교통 허브 조성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국제적 종합 교통허브 건설하고, 전국·권역·지역성 종합적 교통 허브 수준을 제고하며, 중서부 중요 허브 건설을 강화하고, 중요 변경 항구 허브 건설 추진
  - 교통 허브의 종합적 허브 기능 개선



## □ 현대적 자원시스템 건설

- 에너지 혁명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 및 이용방식의 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 공급구조를 특화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청결 저탄소·안전 고효율의 현대적 에너지시스템 건설하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호
  
- 에너지구조 특화 제고 추진
  - 수력발전과 생태보호를 동시에 확보
  - 풍력발전, 광복사 발전을 지속 추진
  - 연해지역 핵발전 벨트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핵발전 시범공정 및 항목을 건설
  - 생명물질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 가속화하고 연해지역 조수를 이용한 발전 적극 추진
  -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지속 추진
  - 국가 종합 에너지기지 건설을 특화하여 석탄의 청결 효율적 이용 추진
  - 동부 제한, 중부 및 동북 통제, 서부지역 석탄자원의 특화 이용 추진
  - 육상 및 해상에너지 탐사 강화하고, 과안권을 점차적으로 개방하며, 천연가스·석탄가스·세일가스 적극 개발
  
- 현대적 에너지 저장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에너지원 시스템 구축

## □ 수자원 안전 강화

<표6> 교통건설 중점 프로젝트

### (1) 고속철도

하얼빈-베이징-홍콩(마카오)지역, 리엔윈강-우루무치, 상하이-쿤밍, 광저우-쿤밍 통과 고속철도 구축을 통한 고속철도망 가속화 개선. 베이징-홍콩(타이완), 후허하오터-난징, 베이징-쿤밍, 바오터우인촨-하이커우, 칭다오-인촨, 란저우(시닝)-광저우, 베이징-란저우, 충칭-샤먼 등 고속철도 통로를 건설하고 지역 연결선을 확장함. 고속철도 운행거리가 3만킬로미터에 달하게 하여 80%이상의 대도시 연결

### (2) 고속도로

7개 수도 방사선, 11개 북-남 종단선 및 18개 동-서 횡단선과 지역 순환노선, 병행노선, 연계선(联络线) 등으로 조성된 국가 고속도로망 건설을 가속화 추진. 장강경제대, 수도권(京津機) 지역 고속 네트워크의 밀도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구간 중 교통체증 다발 구간 확장과 개설 추진. 해당 고속도로 신규 증설 30,000km 달성

### (3) 4연(즉 沿海·沿江·沿邊·沿路) 통로

연해고속철도, 연해고속도로와 연강고속철도를 건설. 연변도로를 가속화 건설. 허토펬(和田)-뤄창(若羌)간 철도, 동북 연변철도, 환창(川藏)철도 등 연변 철도를 건설. 주변 국가로 이어지는 국경 통로와 ‘일대일로’ 연선 통로건설을 추진. 우루무치와 란저우간 중요 노드(node) 도시의 철도에 국제열차 물류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핵심 통로를 건설

### (4) 민간공항

베이징에 신공항과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에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건설. 하얼빈, 선전, 쿤밍, 칭두, 충칭, 시안, 우루무치 등 국제적 중추공항을 가속화 건설. 이를 통해 지역별 중추공항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 중추공항(환승)을 조성. 일부 분주한 간선공항을 신설·이전하거나 처리능력 확대·개조 공정 실시를 통해 지선공항과 일반공항을 건설. 정저우 등 지역에 화물기능 중심의 공항을 건설. 신규 민간공항 50곳 이상 건설.

### (5) 항구·선박시설

환보하이, 장삼각, 주삼각 일대 항구를 최적화. 장강, 주강-서강, 화하, 민강 등 내국에 고급 수운항로를 가속화 건설. 상하이, 텐진, 다롄, 샤먼 등 지역에 국제 수운항로중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 연해항구 컨테이너,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의 품목 포함된 전문적 정박지 건설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해남성 봉황도 등 국제 정기 여객선 부두를 건설. 이를 통해 항구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

(6) 광역도시권 교통

중심도시 간, 중심 도시와 주변 노드(node)도시 간 1-2시간 거리의 도시지역 교통권을 건설하고, 도시 중심도시와 주변 중요 도시·읍 간 1시간 소모의 통근환경을 조성.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장강 중류, 주원, 청위(청두-충칭 일대) 및 산동 반도도시지역에 도시간 철로망(铁路网)을 대략적으로 건설하고 기타 도시간 철로망의 주 프레임을 구축. 이를 통해 시가지 지역(변두리지역 포함) 철로시범공정을 실시

(7) 도시교통

초대·특대형 도시의 선로교통망 개선, 300만명 이상 도시의 선로교통 네트워크 가속화, 도시공공교통 시스템의 최적화, 집약형 주차시설 건설을 통해 도시 도로와 외곽도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함. 또한 조건을 갖춘 도시에 도시 우회도로를 기획·건설 할 수 있도록 추진. 신규 도시선로 설립 목표 약 3,000km 추진

(8) 농촌교통

농촌 도로 건설과 도시의 적격한 교통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강화, 현향(县乡) 지역 도로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 농촌 도로안전보호시설의 건설과 위험 교량 개선을 확대하고 농촌 도로 정비 효과 강화를 통해 적격한 견제촌(建制村:성시급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쳐 설치된 촌)지역에 포장도로와 통근차가 통과되도록 함. 농촌과 서부지역의 우정 및 특급 우편시설을 개선하여 ‘각 농촌 우편 직통(村村直接通邮)’을 실현

(9) 교통 교차로

고속철도, 도시간철도(interurban railway)와 공항 등을 중점으로 개방형, 입체형 종합 여객운수허브의 구축, 동 승강장 환승, 입체환승의 추진, 도시내 중요 여객 중추 운송시설의 급행통로 건설을 통해 환승 거리 및 시간 감축. 복합운송식(一式多联) 화물 운송 허브를 구축하여 장비교체 효율성 제고. 중추교통 건설도시 종합체란 형식을 빌려 전체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

(10) 스마트교통

교통기초시설, 운수수단 및 운행정보 등의 네트워크화 추진, 처렌왕(车联网), 환렌왕(船联网)의 가속화 구축, 고장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정비 시스템 및 스마트 도수조절(调度) 시스템의 개선, 자동화 운전기술, 디지털화 시설 및 지혜화(智慧化) 운행 추진과 철로, 민간항공, 도로 원스톱 ‘티케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 여객도로운수 공공정보서비스 플랫폼과 교통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

## □ 12.5 규획 건의와 비교

- 12.5규획 건의에서는 당시 경기부양 상황을 감안해 경제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육성 및 조정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개혁, 지역경제(국토발전) 등은 별도 정책과제로 제시
  - '건의문'의 맨 앞에서 거시경제 조절 강화 및 개선을 강조
  
- 산업육성 및 구조조정 과제로 '현대산업 시스템을 통한 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설정하고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 글로벌 비교우위 발휘, 구조 특화·기술 제고·청결·안전·부가가치 제고·취업능력 흡수 가능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을 제시
  - 구체 정책은 제조업 개조 및 제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현대적 에너지 및 종합 운수시스템 육성, 정보화 수준 제고, 해양경제 발전 등
  
-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8번째 과제로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1)공유제 주체하의 소유제제도, 국유기업, 2)행정체제, 3)재정세수체제, 4)금융체제, 5)자원 및 요소시장, 6)사회사업 시스템등의 개혁 과제를 제시
  
- 이외에 13.5규획 건의에서 혁신경제 달성 과제에 포함시킨 지역발전(국토개발), 과학기술 및 인재육성 전략은 별도 정책과제로 제시

## 2) 신형도시화 및 지역발전 전략

### [13.5 기획 도시화 및 지역성장 전략 개요]

- (기본 방향) 인간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하고, 도시군을 주요 형태로 하며, 도시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체제메카니즘의 혁신을 보장수단으로 하는 신형도시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신농촌건설 수준을 제고하며 도-농간 발전 격차 축소에 노력하고 도농간 일체화된 발전을 추진
- (주요 정책) 신형도시화와 지역경제발전 전략
- (12.5규획과 비교) 2005년 이후 신농촌건설을 모든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설정해 왔으나 13.5 기획에서 신농촌건설을 신형도시화 정책으로 대체하고 농촌 발전전략 과제는 신형도시화 정책에 통합
  - 이와 함께 신형도시화 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전략을 균형성장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통합시킴으로서 도시화와 농촌 발전, 지역발전 정책을 중층적으로 통합했음

#### (1) 신형도시화\*

\* 13.5구획의 제8편(32~36장) 부분에 해당

#### □ 농업 이전 농촌 인구의 시민화 추진

- 호적제도 개혁과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상주인구의 시민화 장려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인구의 도시 유입을 추진
- 호적제도 개혁 심화, 거주증 제도 실시,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기제 건전화 등을 실시

## □ 도시화 분포 및 형태의 특화

- 육교 통로, 장강연안 통로를 횡축으로 하고 연해, 베이징-하얼빈-광저우, 빠오두-쿤밍 통로를 종축으로 하며, 대중소 도시와 소도시가 합리적으로 분포시키고 “양횡삼종”\*의 도시화 전략을 가속화
- 도시군 건설 발전 가속화
  - 동부지역 도시군의 특화와 제고 :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에 세계적인 도시군을 건설하고 산둥반도, 해협서안도시군의 개방적 경쟁수준을 제고하며, 중서부지역 도시군을 육성하고, 동북지역 중원지역 장강 중류지역 성유지역, 관중평원 도시군을 발전시키며, 기타 북부만, 산서중부 등 8개 도시군의 발전을 계획
  - 라싸와 카스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 발전을 촉진
- 중심도시의 복사·견인 역할 강화
  - 일련의 중심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서비스 기능을 강화
  - 대도시와 특대도시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여 중심 시가지의 기능을 완화하고 주변 도시와의 교통 개선 및 일체화 발전을 강화하여 도시권 형성을 촉진
  - 대중도시는 산업 전환과 제고를 가속화하여 배후지의 산업과 서비스 체인을 가속화하여 지역발전의 성장고리 견인 역할을 강화
- 중소도시 및 특수 소도시(鎭) 발전 가속화
  - 품질 제고, 수량 증가를 주요 방향으로 삼아 중소도시의 발전을 가속화

## <도시군 공간분포도>



### □ 조화롭고 안락한 주거도시 건설

- 도시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도시 관리능력을 제고하며, “도시병” 예방 능력을 제고하고, 도시의 환경 수준과 거주민 생활수준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
- 신형도시 건설을 가속화
  -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혁신도시, 인문도시 건설에 노력
- 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 도시 인프라시스템 개선, 물공급, 도시관리 네트워크, 주차장, 교통안전, 유아원, 학교 등 관련 규정 개선
- 도시 재개발 지역 및 위험 주택 개조 추진
- 도시 관리수준 제고

## □ 도-농 협조발전 추진

- 신형도시화와 신농촌 건설의 협조적 발전을 추진하고, 농촌경제(縣域經濟)에 대한 복사 능력을 제고하며, 공공자원의 도농간 균형 배치를 촉진하고 농촌의 광활한 발전공간을 개척하여 도-농 공동발전의 신구조를 형성
- 특성을 가진 농촌지역(縣域) 경제 발전
- 아름답고 안락한 농촌 건설

### <표7> 신형도시화 건설 중요 프로젝트

#### (1) “3개 일억명(三個1億人)” 도시화

1억명 가량의 농업 이전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민화 추진. 1억명 가량의 재개발 및 도시 사이 농촌(城中村) 지역 개조 가속화 추진. 중서부지역 도시군에 기반하여 중소도시를 중점으로 삼고, 현 중심지와 중점 읍(鎭)을 지주로 삼아 약 1억명 가량의 중서부지역 도시화를 추진

#### (2) 신생 중소도시 육성

읍(鎭) 지역 상주인구의 규모, 인구밀도 및 경제규모등을 기준으로 삼아 여건에 부합하는 일련의 현소재지(縣城) 및 특대 읍(鎭)의 전체 기능을 제고하여, 일련의 기능을 잘 갖추고 특성을 지닌 신생 중소도시를 육성

#### (3) 특성을 지닌 소도시

특유의 자원, 위치 장점 및 문화적 저변을 갖춘 소도시를 육성. 권한 확대 및 투자, 지원 확대를 통해 휴식과 여가·비즈니스 물류·정보산업·스마트제조, 과학기술 교육·민속문화 전승 등 전문적 기능을 지닌 읍을 육성

#### (4)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공공서비스의 편의화·사회관리의 정밀화를 중심 목표로 삼아 현대적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충분히 운용하고 일련의 신형 시범성 스마트도시를 건설

(5) 녹색·삼림도시

녹색 건축을 추진하고, 녹색교통을 보급하며, 분포식 에너지·지열 활용 등 신형 에너지원 공급시스템을 확대하고, 공공교통의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녹색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며, 도시 공원 및 녹지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 녹지대 및 삼림 면적을 확대하고, 일련의 시범적 녹색도시·생태공원 도시·삼림도시를 건설

(6) 스펀지(海綿)도시

가공 조질크 통해 도시 배수 및 방수 및 조절 조치를 개선하고 스펀지형 건축 및 도시공간·도로 및 광장·공원 및 녹지 등의 건설을 지속

(7) 지하관 네트워크

도시지역 신시가지·각종 거주지역·개발구를 중심으로 구도시의 개조와 지하공간 개발 등을 결합하고, 간선·지선의 종합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물공급·오수·빗물·가스배출·열공급 등의 지하관 네트워크 건설 및 개조, 도시 전력네트워크·통신선 네트워크 등 프로젝트를 추진

(8) 아름다운 농촌

신형의 농촌거주지역 물공급을 집중 추진하여 농촌 상수도 보급율 80% 달성. 지역 형편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청결에너지 시범 농촌을 건설. 지역 사정을 감안해 농촌지역 위험 주택을 개조하고 주택의 지진 대비능력을 높이며 위험지역 재건 추진.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농촌지역 화장실 혁명을 전개.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행동운동을 추진하여 13만개 행정촌의 환경 종합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폐기물 자원화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수 쓰레기 수입처리시설을 건설하고, 농촌 생활 오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90%의 행정촌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

## (2) 지역간 협조(協調) 발전 추진\*

\* 13.5규획의 제9편(37~41장)에 해당

- 지역발전 전체전략에 기초하고 “일대일로”건설, 징진지 협동발전, 장강경제대 발전의 인술 하에 연해 연강 연선 경제대를 주축으로 하는 종횡형 경제대를 형성

### □ 전체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 ○ 서부대개발 지속 추진

- 서부대개발을 우선적 위치에 놓고 “일대일로” 건설의 서부대개발에 대한 대동역할을 발휘
- 내외 연계 통로 및 지역성 허브 건설 가속화, 녹색 농산품 가공·문화여행 등 특색 우위산업 육성, 국가급 산업 이전 시범지역 설립 통한 산업 클러스터 발전

#### ○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지역 진흥 추진

- 시장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해 동북지역등 노공업지역 발전의 활력 및 내생적 동력 및 전체 경쟁력 제고
-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하고 민영 경제 발전 가속화
- 창업 혁신 장려하고 기술 및 산업 혁신센터 건설을 강화
- 현대화 된 대규모 농업을 발전시키고 전통 우위산업의 품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노력하고, 산업 전환 제고 시험구를 건설하고 선진 장비제조업 기지 및 중대 기술장비 전략기지 건설을 추진
- 국유기업 개혁 추진
-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국가와의 협력 플랫폼 건설 지원

○ 중부지역 굴기 촉진

- 중부지역의 남북관통, 동서 연결의 현대적 교통시스템 및 현대적 물류시스템 지원, 방대한 연강(沿江), 연선(沿線) 도시군 및 도시권의 성장축을 육성
- 산업 이전을 받아들여 현대적 농업과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산업의 전환 지원, 전략적 신흥산업 및 고기술 산업기지 건설하여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정저우 항공항구(航空港口) 경제종합시험구 건설 가속화
- 내륙지역의 개방형 경제 발전 지원

○ 동부지역 우선적(率先) 발전 지원

- 전국발전에 대한 인솔 역할과 복사·대동능력 제고
- 혁신 추진 발전 전환의 추진
- 전방위적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건립하여 고수준의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
- 환발해지역 협력 및 협조 발전, 주강삼각주지역 개방형 혁신 전환 제고(昇級) 지원하여 선전(深圳)의 과학기술, 산업 혁신센터 건설 가속화하고, 주강삼각주 지역협력을 심화하여 주강-서강(珠江-西江) 경제벨트 발전을 가속화

○ 지역 협조발전 메커니즘 건전화

## □ 수도권지역(京津冀) 협동발전 추진

- 장점 보완, 상호 공영, 지역 일체화 방침에 따라 경제구조와 공간 구조상의 우위를 조정하여 인구와 경제의 밀집지역의 통합 개발 모델을 진행하여 수도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도시권을 건설하고 환발해지역과 북방 배후지의 발전을 복사, 대동
-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점진적 분산
  -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을 통해 도시 인구밀도 완화
  - 에너지 고소비, 오염물질 배출기업, 지역성 물류기지 및 전문시장, 일부 교육·의료 및 훈련기구, 일부 행정 사업성 서비스기구 및 기업본사 등을 이전
- 공간구조 및 기능적 역할 특화
  - “일핵, 쌍성, 3축, 4지역 다초점”의 공간구조 추진
  - 베이징 : 지식경제, 서비스경제, 녹색경제 집중 발전
  - 톈진 : 선진제조업, 전략적 신흥 산업 및 현대적 서비스업 육성
  - 허베이 :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접수 및 베이징과 톈진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접수
- 통합된 현대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 환경 용량 및 생태 공간 확대
- 공공서비스의 공동 구축 및 공동 향유 추진

## □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 발전 추진

- 생태우선, 녹색발전 전략에 따라 장강 생태환경을 우선순위에 놓고, 장강 상중하류지역간 협동적 발전, 동중서부 지역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선행 시범벨트, 혁신 주축 벨트, 협조 발전 벨트를 건설
  
- 장강연안 녹색 생태 회랑 건설
  - 장강 유역이 수자원 보호와 오염 관리 추진
  
- 고품질의 종합 입체교통 회랑 구축
  - 장강 황금수로에 위탁하여 다양한 교통방식의 발전 추진
  
- 연강 도시 및 산업 분포 특화
  - 장강삼각주, 장강중류, 청두-충칭 등 3대 도시군 기능을 제고하고, 상하이의 “4개 중심”의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충칭의 전략적 거점과 연계점 역할을 발휘
  
  - 중심도시의 대동, 중소도시의 지원 네트워크화 구조를 구축

## □ 특수 유형의 지역발전을 지원

- 혁명근거지 지역, 소수민족 지역, 변경지역 및 빈곤지역 지원을 확대

## □ 청색경제(藍色經濟) 공간 확대

- 육지-해양 공동 발전을 겨냥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며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여 해양 강국을 건설
- 해양경제 확대
  - 해양산업구조를 특화하여 원양어업 발전, 해수담수화 규모화 응용 추진, 해양생물의약, 해양장비제조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 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진
- 해양자원 환경 보호 강화
- 해양권익 보호

## □ 12.5 계획 건의와 비교

- 12.5계획 건의에서는 지역발전 전략,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전략\*, 도시화 배치 및 형태 개선, 도시화 관리 강화, 특히 신농촌건설 등을 별도 정책 과제로 제시
  - 12.5계획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우선순위에 두고 동북등 노공업지역 진흥, 중부지역 굴기, 동부지역 솔선 발전 등을 제시했으나 이번 13.5계획에서는 서부대개발에 대한 강조보다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추진으로 전환
  - 12.5계획 기간까지 신농촌건설\*을 별도로 중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13.5계획 건의에서는 농촌 관련 정책을 도시화 및 지역발전전략과 통합하여 제시하고 신농촌건설 과제는 삭제
    - \* 2005년부터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제시돼 왔으며 12.5계획 기간에 추진해 온 정책은 ①현대적 농업 발전, ②농촌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강화, ③농민 수입원 확대, ④농촌 발전 메커니즘 개선 등임
  - 13년부터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정책을 추진
    - \* (주요내용) 2020년까지 상주인구 기준으로 도시화율 60% 달성, 도시호적 기준 도시화율 45%달성하여 양자간 격차를 2%p로 축소시키며 1억명의 농촌이주노동자와 기타 상주인구에게 도시호적을 부여. 퇴화의 수준 및 질 제고, 도시화 구조의 고도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달성, 도시생활의 편리성 보장, 도시화 체제 메커니즘의지속적 완비등

### 3) 생태 및 환경친화적 성장\*

\* 13.5규획의 제10편(42~48장)에 해당

#### [13.5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성장 전략 개요]

- (기본방향) 환경 품질제고를 핵심으로 삼아 생태환경 분야의 문제를 중점으로 삼아 생태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 인민에게 다 많은 우수한 생태제품을 제공하여 인민의 부유, 국가의 부강, 미려한 중국을 동시에 추진
- (주요 내용) 6개의 정책 분야로 구성
  - 주체기능구 발전
  - 자원 절약 및 집약적 이용
  - 종합적 환경관리 능력 제고
  - 생태보호 및 회복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 녹색 환경산업 육성
- (12.5규획과 비교) 12.5규획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분산적으로 제시한 반면 13.5규획에서는 각 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동시에 특히 보호·절약을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
  - 지구 기후변화 적극 대응\*, 순환경제 발전, 자원절약 및 관리 강화, 환경보호 능력 확대, 생태보호 및 재난예방 및 시스템 강화 등을 초보적 수준에서 제시

\*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기후변화 대응능력 증진, 국제협력 강화 등

#### □ 주체기능구(主體機能區)\* 건설 가속화

\* (주체기능구) 인구 분포, 경제구조, 국토이용 및 도시화 구조를 감안해 전국토를 몇 개의 역할지역(도시화 지역, 농산품 생산지역, 생태기능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관련 정책을 배치하는 전략으로 2013년 공포

○ 주체기능구 배치 기본적 형성 추진

- “양횡삼종”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화전략, “7구23벨트”\*를 주체로 하는 농업전략, “양병3벨트”\*\*를 주체로 하는 생태안전 전략,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구조를 추진

\* 7구 23벨트 : 벼,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품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특수지역 육성전략

\*\* 양병 3벨트 : 중국의 칭짱고원지대, 쓰촨, 동북산림지대, 북방산림지대, 남방구릉 지대를 녹색성장을 통한 하나의 생태안전 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생태보호전략

○ 주체 기능구 관련정책 시스템 개선

- 주체 기능구 배치에 맞춰 차별화된 재정, 산업, 투자, 인구이동, 토지, 자원개발, 환경보호등의 정책을 추진

○ 공간관리 시스템 건립

- 시 및 현급 행정 단위로 공간규획, 용도 관리, 차별화된 고과제도 등으로 구성된 공간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주체기능구 분류 지도>



\* 설명 :

- (특화개발구(적색)) 수도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 등으로 고수준의 고효율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병’ 예방에 주력하며 건설용지 규제
- (중점개발구(황토색)) 산업 및 인구의 집적수준을 제고
- (중점생태기능구(황색)) 산업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실시
- (농산물 생산 및 중점 생태기능구(녹색)) 예산 지원·보상 확대등 실시

□ 자원 절약 및 집약적 이용

- 절약, 집약, 순환 이용에 기반한 자원관을 수립하여 자원 이용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 전 과정에 대한 절약 관리를 강화하며 자원 이용 종합 효율의 제고를 달성
- 이를 위해, 전면적 에너지절약 추진, 절수형 사회의 전면적 건설, 집약적 토지이용, 광산자원 절약과 관리 강화 등을 추진
- 이외에 순환경제 발전, 근검절약형 생활방식 창도, 자원의 효과적 이용메커니즘 건립

**<표8> 자원의 절약 및 집약적 순환 이용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

(1) 전국민 에너지절약 행동계획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를 기업과 가정을 상대로 추진. 6대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공업용 에너지효율 제고 계획을 중점으로 삼아, 500대 중점 에너지 사용 기관을 상대로 에너지효율 종합 제고시범사업을 추진. 에너지 이용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기 및 기계분야의 에너지 절약 개조·에너지절약 기술산업화 시범사업·에너지절약 기술 산업화 시범사업·석탄소비 감축 및 대체·녹색조명 등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

(2) 전국민 절수 행동계획

절수형 사회 종합 시범사업을 전개.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구역을 나누어 계량·누수 방지를 위한 개조사업을 추진. 중수도 대체·폐수의 적극적 처리 및 재활용을 장려하고 5대 물 소모 업종 및 거주지역의 절수 개조 추진. 100개의 합동 절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절수용기 사용 확대 추진, 거주민 상대 불합리한 절수 표준 용기 대체 장려등을 추진. 해양 도서지역 담수화 시범프로젝트 실시. 중점 용수 기관에 대한 감독 사업 실시

(3) 건설용지의 절약 및 집약적 이용

조사평가 기술시스템을 건전화하여 도시·개발구·학교·촌읍의 건설용지 절약 및 집약적 이용 평가를 위한 국가급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고, 용지 절약 기술 및 모델 응용을 확대

(4) 녹색 광산 및 녹색 광산 발전 시범지역 건설

녹색 광산건설을 가속화하여 기술·산업 및 관리모델의 혁신을 추진하고 전통적 광산의 전환과 승급을 유도. 자원이 집중돼 있고 관리 혁신 능력이 강한 지역중에서 50개를 선택하여 녹색광산 발전 시범지역 건설을 추진

(5) 순환형 발전 유도

국가급 단지 75% 및 성급 단지 50%에서 순환형 개조를 추진. 50개 공업폐기물 종합 이용 산업기지 건설. 100개의 지급시 이상 도시에서 자원 순환시범 이용 기지 이용. 도시 폐기물 온라인 회수·단지 자원관리·폐기물 교역소 등의 플랫폼을 건설

## □ 종합적 환경 관리 수준 제고

- 오염예방 행동계획 추진 강화
- 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배출 총량 감소 추진
- 환경 리스크 엄격 통제
- 환경 인프라 시설 건설 확대
- 기초 환경관리 제도 개혁

### <표9>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 (1) 공업 오염원 배출 기준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제지, 염색, 화학비료, 제당 등 업종가운데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개조 진행. 국가산업정책의 오염예방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취소. 공업단지 오수처리 시설 개조 제한.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 건설 지역에서 10입방톤 이하의 석탄보일러를 기본적으로 도태시키고, 35입방톤급 이상의 석탄보일러에 대해 탈황 및 분진제거 개조·철강업종 고로의 탈황 개조·시멘트업종의 탈황 개조 추진. 고수는 촉매제 아세틸렌법으로 생산한 농축에틸렌 제조기술 도태

#### (2) 대기환경 관리

수도권 및 주변지역·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석탄소비 총량을 통제하고 중점도시의 “석탄 소비의 가스 대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4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신규 증설하고, 연료석탄 보일러 18.9만 입방톤을 대체. 석유화학 및 화공기업·주유소의 휘발성 유기물 종합 관리를 전개하며, 에너지소모 불량 차량과 중고차량 도태를 가속화하고 국가 VI 배출표준 및 상응하는 유류품 표준을 실시. 유조차, 저유고의 유류 및 가스 회수처리 추진

#### (3) 수질환경 관리

하천 하구 및 378개 3급수 및 3급수 이상 하천 및 호소(湖沼)에 대해 엄격한

보호를 실시. 중요 하천 및 호소 유입수에 대한 오염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요 음용수원 지표 관리를 실시. 타이후(太湖), 땡명호(洞庭湖), 진즈(滇池), 자오후(鄴湖), 아이비호(艾比湖), 푸양호(鄱陽湖), 우량수해(烏梁素海), 후룬호(呼倫湖) 등 중점 호소의 오염원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장강 중하류, 주삼각 등의 하천에 대해 관리를 강화. 장강, 황하, 주강, 송화강, 회하, 하이하(海河), 요하 등 7대 중저 유역 종합관리를 추진하고 4급수의 기본적인 제거를 달성. 검고 냄새나는 수질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지금시 이상 도시지역에서 검고 냄새나는 물을 10% 이내로 통제. 수도권 및 허난성 등 지역의 지하수 수질 회복 시범사업을 추진. 주요 하구의 해양수 오염을 관리

#### (4) 토양환경 관리

토양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100개 농업용지 및 100개 건설용지 오염 관리 시범사업 실시. 6개의 토양 오염 예방 선형 시범구 건설. 화공기업의 환경안전 이전후 토양 오염 관리 사업 진행. 1,000만무의 오염 경작지 관리 및 회복과 4,000만무 오염 경작지 리스크 관리 추진. 상강(湘江)유역을 중심으로 중금속 오염 종합관리 사업 추진

#### (5) 위험 폐기물 오염예방

전국적으로 위험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중금속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향생제 분산, 고독성 지속 폐기물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 (6) 핵 및 방사능 안전보장 능력 제고

핵 및 방사능 안전 감독기술 연구개발기지 건설하고, 핵시설 조기 퇴역 및 오래된 방사능 폐기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 가속화하며, 5개이 중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및 1개의 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 지하실험실을 건설. 고위험 방사능 감독통제 시스템을 건설하고 폐기 방사원의 100% 안전 저장 달성. 국가 핵 사고 응급구조대 건설 강화

## □ 생태보호 및 회복 강화

- 생태시스템 기능 제고
- 중점지역 생태 회복 추진
- 생태제품 공급 확대
- 생물다양성 유지

##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 오염 배출 감소와 적응의 동시 추진 원칙하에 능동적으로 탄소배출을 통제하고 배출 감소 양허내용을 실시하며,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증진하며, 글로벌 기후관리에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 녹색 환경산업 발전

- 서비스 주체를 육성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기술장비 및 서비스모델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
- 환경보호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
  - 기업 자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 컨설팅, 시스템 설계, 설비 제조, 공정 시공, 운영 등 전문화 된 서비스 발전을 장려
  - 민간 자본의 환경 인프라시설 분야 진입을 장려하고, 소도시 및 단지 종합 환경관리 위탁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업 육성
  - 녹색 표식, 인증 및 정부의 녹색 조달제도를 동시에 진행
  - 녹색 금융시스템을 건립하고 녹색 대출, 녹색 채권을 발전시키며, 녹색 발전기금을 설립
  - 녹색 공급체인 산업시스템을 구축
- 환경보호 기술 및 장비 발전
  -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공정 기술 및 설비 제조능력을 증진
  - 저품위 잔여열 활용 발전, 소형 터빈, 매립물질 처리, 자동차배기 가스 정화, 쓰레기 배출액 처리, 오염폐기물 자원화, 복수 오염물질 동시처리, 토양오염 복구 관리 등 신형 기술장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가속화
  - 고효율 연기내 먼지제거 및 잔여열 회수, 고효율 열펌프, 반도체 조명, 폐기물 순환이용 등 기술의 생산 확대

#### 4) 대외경제 : 개방 확대와 대내외 연계 발전\*

\* 13.5규획의 제11편(49~53장) 부분에 해당

##### [13.5 규획 대외경제 관련 정책 개요]

- (기본방향) “일대일로”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대외개방의 대내경제적 중요성(內涵)을 풍부히 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넓혀 전략적 상호신뢰, 투자 및 무역 협력, 인문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심층차적이고 융합적인 상호이익 협력구조 형성에 노력
- (내용) 대외개방 전략, 체제,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
  - 대외개방전략 구조 개선
  -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정비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
- (12.5규획과 비교) 13.5 규획의 대외경제 정책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개방 추진 의지가 두드러짐
  - 12.5규획에서는 대체로 중국의 개방을 통한 국제통상 입지 강화 및 산업 추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호 및 추격발전 정책 경향과 다소 방어적이고 도전적인 ‘호혜적 대외개방 수준 제고’ 원칙 제시
  - 12.5규획 정책을 추진하는 중간 ‘일대일로’(2013년), 자유무역시험구(2013년), 외국인 투자제한 대폭 감축(2015년)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상호연계된 대외개방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 시작되는 13.5규획에서 이러한 방향 전환이 집대성되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전략) 대외개방전략 구조 개선

- 쌍방향 개방의 전면 추진으로 국내-국제 요소의 질서 있는 이동, 자원의 효율적 배치, 시장의 심도 있는 결합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가속화

## ○ 대외개방 지역 분포 개선

- 내륙 국경지역 항구와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국경지역의 다양한 운수 및 교통 회랑을 개척
- 외향형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켜 각자 중요한 특성을 지닌 대외 개방기지를 형성
- 세관 특수감독지역의 특화 제고를 가속화하고 변경경제협력지역, 변경경제협력구의 발전 수준을 제고
- 경제기술개발구의 대외협력 수준을 제고
- 내륙 중심도시와 도시군에 의탁하여 내륙 개방전략의 지지대를 건설
- 연해지역의 글로벌 경제협력과 경쟁 전면적 참여를 지원하여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지역,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외개방 문호 역할을 발휘하고 국제 고수준 표준 투자와 무역 규범 시스템을 숭선하여 받아들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경제구를 육성
- 닝샤(寧夏) 등 내륙 개방형 경제시험구의 건설을 지원
- 중-싱가폴간 (충칭) 전략적 상호연계시범프로젝트를 지원
- 쌍방향 국제협력산업원 건설을 추진
- 저우산(舟山) 자유무역항구 건립을 탐색

## ○ 국제적 생산능력과 장비 및 장비 제조협력 추진

- 강철, 유색금속, 전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방직, 자동차, 통신, 건설기계, 항공우주, 선박 및 해양공정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건설수주, 기술협력, 장비수출 등의 형식을 통해 국제적 제조능력(産能) 및 장비제조 협력을 전개하고 장비, 기술, 표준, 서비스 등의 해외진출을 추진
- 기업의 클러스터식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지역별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해외산업클러스터지역 건설을 추진
- 다자간 생산능력 협력 기제를 개척하여 선진국가와 협력하여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적극 추진
- 재정세무, 금융, 보험, 투자유자 플랫폼 및 리스크 평가등의 서비스를 통한 지원 시스템 개선

○ 대외무역 수준 제고(특화) 가속화

- 가격 우위 이용 수출을 품질 이용 수출로 전환하여 무역강국 건설을 가속화
-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성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키며 서비스무역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6% 이상으로 제고
- 전통적 수출 우위를 제고하고 가공무역의 혁신 발전을 촉진
- 대외무역 분포를 특화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신흥시장의 비중을 높이며 전통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함
- 신형의 무역방식 발전을 장려
- 수출신용보험 발전
- 수입을 확대하고 특화하여 선진 기술장비와 우수 소비품 수입을 확대
- 대외 기술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 마찰 경보를 강화하여 무역마찰과 분쟁을 완화

○ 외자 이용과 대외 투자 수준을 제고

- 대외개방 영역을 확대하여 진입제한을 축소하고 외국 자금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외자 이용의 종합적 수준을 제고
- 육아, 건축설계, 회계 및 심사등 서비스분야 외자진입 제한을 개방하고 은행, 보험, 증권, 양로등에 대한 시장 진입을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선진제조, 고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현대적 서비스업 등 분야 투자 및 중서부와 동북지역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지원
-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용자를 장려
-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 글로벌 생산체인, 벨류체인, 물류체인과 융합
- 일련의 주종 품목의 해외생산기지 및 합작지역을 건설
- 대외 투자 금융 및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 (제도개혁) 대내외 개방의 신체제 완비

- 법제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협력을 통한 공영, 국제 무역투자 규범과 적응하는 기제 마련
-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창조
  - 공평 경쟁 시장환경 창조
  - 내외 자본 법규 통일을 통한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수준을 제고
  -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전면 도입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 심사제도 개선
  - 외자 감독 및 관리 방식의 혁신
  - 국제 전자상거래 등 신형 무역방식의 원활화를 수립하여 국제무역 단일 창구, 원스톱 업무, 일체화 통관 및 정부 정보 공유와 공동 이용, 항구리스크 연계 통제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
  - 지적재산권 보호와 반독점법 집행 및 국제 집행협력 심화
- 해외 투자관리체제 개선
  - 해외 투자 발전 기획 및 중점 분야, 지역, 국별 기획 시스템을 개선
  - 신고 위주, 허가 보조 방식의 대외 투자관리체제를 건전화하여 대외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화하고 원활화 수준을 제고
  - 개인의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국내 기인 개인투자자 합격제도를 건전화
  -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심사제도를 개선
- 금융업의 쌍방향 개방 확대
  - 인민폐 태환을 점차 실현하여 태환성, 자유사용 정도를 제고하고 인민폐의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며 인민폐 자본의 해외 진출을 추진
  - 외환관리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점차 건립
  - 해외 투자환전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의 외환관리를 개선
- 대외개방 서비스 보장 강화

## □ (프로젝트)“일대일로” 건설 추진

- 공동 비즈니스, 공동 향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 국가 및 지역과 상호 호혜 공영의 실질적 협력을 전개하고, 대내외 연계 및 동서 쌍방향 개방이라는 새로운 개방구조 창조
- “일대일로” 협력 기제 추진
  - 정책 소통, 시설 연계, 무역 소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양자 및 다자적 협력기제 건전화
  - 연선국가 발전규획, 기술표준시스템 연계를 추진
  - 기업을 주체로 하고 프로젝트에 기초하며, 각종 기금을 인도하고, 기업-기구의 참여와 다원화된 용자 모델을 건립
  - 국제조직과 금융조직의 협력을 추진하여 AIIB, BRICs 신개발은행을 적극 추진하고 실크로드 기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 자금의 공동 건립하는 개방형 다원화 금융협력 플랫폼 도입
  - 방대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의 교량 유대 역할을 발휘
- “일대일로” 경제회랑 확대
  -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 신유라시아대륙교, 중-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경제 협력 회랑 건설 추진
  - 에너지 자원 및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가공전환율을 제고
  - 중국-유럽 등 국제 컨테이너운송 및 우편선 발전을 지원
  - 상하이협력기구(SCO) 국제물류센터와 중국-카자흐스탄 협력기지 건설
  - “21세기 해상실크로드”전략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연선(沿線) 지역의 중요 항구 건설과 경영에 참여하고 항구지역 산업클러스터지역 공동 건설 추진하고, 해상무역 통로 확대
  - 항공-철도-수운 연계식 운송을 추진하고 국제물류 통로를 구축하며 중요 통로, 항구 인프라 건설 강화
  - 신장(新疆) 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지역,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 건설

○ 개방적·포용적인 인적 교류의 신국면 창출

-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을 추진하여 실크로드(돈황) 국제문화박람회 등의 역할을 발휘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여행, 환경보호, 위생 및 중의약 등 분야의 협력 추진
- 기타 민관 공동의 다방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문 교류 메카니즘 구축
- 특색있는 여행제품을 공동 개발하여 여행업 원활화 제고

□ 글로벌 경제관리 및 국제적 책임과 의무

- 국제경제 거커넨스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 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

## 5) 동반(共享)경제 추진\*

\* 13.5규획의 제 13~17편(56~73장) 부분에 해당

### [13.5규획 동반경제 정책 개요]

- (기본방향) 공공서비스 확대, 소득격차 감소, 공평하고 수준 높은 교육,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통합하고 지속가능 발전 및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
  - \* “전체 국민 공동의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을 실현”
  - 동반성장은 이번 13.5규획에서 새로 제시한 과제중 하나로 소득격차 축소, 기회 균등, 교육의 질 제고 등을 하나로 묶어 정치사회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강화를 강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음
- (내용) 빈곤 대책, 교육 및 건강 증진, 민생 보장 등 3가지 정책과제 제시
- (12.5 규획 건의와 비교) 12.5규획에서는 민생 개선과 기초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립을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배치하는데 그침
  - 12.5규획에서는 기본공공서비스 관련 과제로 6가지\*만 제시
    - \* 1)취업 및 노동 정책, 2)소득 격차 조정(合理調整), 3)사회보장시스템 확대, 4)의료·위생 사업 개혁, 5)인구정책 안정적 추진, 6)사회관리 강화 및 혁신
  - 12.5규획에서는 교육분야를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별도 과제로 제시
- (공공 서비스공급) 의무교육, 취업 서비스, 사회보장, 기본 의료 및 공공 위생, 공공 문화, 환경보호 등 기본 공공서비스 확대
- (빈곤구제) 정확하고 강제력 있는 빈곤구제 정책 추진, 지역별로 특성화된 빈곤 지원, 정확한 빈곤구제 정책 추진체계 수립, 집행
- (교육) 교육의 질 개선, 의무교육 확대, 교육 부담 경감, 공평한 교육 제고, 더 나아가 입학시험제도 개혁 등 교육관련 정책을 동반성장 과제로 통합하여 제시

- (취업·창업) 창업 기회 확대, 공평한 취업 기회 제공, 신형 취업 형태 지원, 평생 직업훈련제도 추진, 노동력 시장의 이동 확대 등 추진
- (소득 분배) 중간 소득계층 확대를 중심 목표로 삼아 임금 및 소득, 사회구제 제도 실시
- (사회보장)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근로자 양로보험 개인장부제도 개선을 통해 많이 납부 할수록 많이 돌려받는 메커니즘 수립, 의료보험제도 건립, 통합 구제시스템 수립 등을 추진
- (의료·위생) 의료·의료보험·의약 연동제를 통한 의료 분업 추진, 분급(分級) 진료 실시, 기본의료 위생제도 및 현대적 병원 관리제도 수립 등 추진
- (인구) 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실시, 모자보건·탁아 등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가족계획 곤란 가정 지원 등을 추진

### Ⅲ. 시사점과 대응방안

#### 1.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협력 환경 변화

##### □ 중국 '특수' 종언의 공식화

- 이번 13.5규획 건의를 통해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중고속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상응하는 대내외 정책 및 비즈니스 여건 변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
-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글로벌 벨류체인의 변화에 따라 심화되던 수출입 둔화세가 이번 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중국정부는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전환을 목표로 양적 수출입 확대보다는 자국기업의 수출 확대, 수출의 질적 수준 제고, 서비스무역 발전에 치중할 것임을 공식 확인
- 중고속 성장기조하 중국의 시장 재편 및 정책 변화 맞춤형 전략 필요

##### □ 추격·경쟁 가속화

- 중국이 육성하려는 신성장산업과 우리의 육성 산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양국간 신성장산업을 둘러싼 경쟁 격화 예상
  - 한국이 지정한 미래성장동력 19대 업종은 거의 대부분 중국 13.5규획의 10대 육성대상 업종과 중복\*
  - \* 12개 업종 완전 중복, 6개 업종 일부 중복, 1개 업종(재난안전시스템)만 무관(첨부 참조)
- 이에 따라 중국내 수입대체화와 국제시장 경쟁 격화 가속화 전망

## 2. 기회 및 협력 구조 변화

### □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 신성장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육성대상 산업은 물론 산업의 '정보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 관련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
- 특히 과거와 달리 추격 및 산업보호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주력하기 보다는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대중 협력 여건도 개선될 전망

### □ 중국의 소비기반 성장 전략에 따른 기회

- 13.5규획 기간 중국은 새로운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스마트·녹색·웰빙·안전 소비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비스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어서 우리 관련 업종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소비재 분야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관세 철폐/인하가 집중될 분야로 한중 FTA 발효후 대중수출 대대적 호전 예상

### □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협력 가능성 확대

- '일대일로' 등 적극적인 대외협력 및 통상정책 방침 천명 역시 한중 FTA를 비롯한 한중간 협력 공간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

### 3. 새로운 기회와 협력 분야

#### □ 성장전략 관련 기회/리스크와 관련 업종

- 혁신경제 추진, 내수 기반 확대 및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위협/리스크 보다 기회가 더 큰 가운데 관련 업종도 광범위
- (기회 vs. 리스크/위협)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으로 관련 업종의 경쟁 격화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고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과거의 추격 및 보호주의 경향이 약화되고 있어 기회가 더 클 전망
- (관련 업종) 광범위한 업종에서 기회가 늘어날 전망
  - (신흥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생명과학 기술, 녹색 저탄소 업종, 고급 장비 및 소재, 디지털 혁신 분야의 장비 및 소재, 소프트웨어
  - (전략산업) 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생명과학, 핵기술, 농업기술 등 분야의 소재와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 (첨단 서비스업) 공업용 디자인, 공정 및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및 회계, 현대적 보험, 신용평가, 판매후 서비스, 검사 및 인증 평가, 인력서비스, 유통, 물류
  - (생활 서비스업)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양로, 문화 오락, 체육, 여행, 가정서비스
  - (“인터넷+” 관련 분야)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전자상거래, 첨단 물류시스템,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인터넷 융합 등
  - (고급소비재) ‘스마트, 안전, 녹색, 웰빙’ 관련 소비재(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고급 가전제품, 환경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첨단 인프라) 교통통제 시스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인프라, 전력, 전신, 재해 예방 및 관제

□ (도시화·지역발전) 신형도시화 및 지역균형전략 관련 기회/리스크와 관련 업종

-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른 수요 및 소비 확대에 따른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경제 발전전략 역시 실제 권역/지역별 시장 규모와 수준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바뀌고 있어 중국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
- 관련 업종의 투자수요 확대, 소비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기회가 커질 전망
- (기회 vs. 리스크/위협) 정책 추진 자체에 따른 리스크는 별로 없으나 정책의 방향에 맞는 중국시장 개척 전략이 중요
- (관련 업종) 신형도시화와 지역개발 정책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 신형도시화 진전에 따른 소비 확대 및 수준 제고, 관련 서비스 분야에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서비스업 개방 확대로 서비스분야 기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인프라) 건설·건축 및 장비·소재, 관련 컨설팅 등
  - (서비스업) 물류·유통·전자상거래 진출 및 활용, 상기 각종 첨단 서비스(컨설팅, 법률, 인증·검사 등) 및 생활형 서비스업(교육, 의료, 가사 등)
  - (소비재) '웰빙, 스마트, 녹색, 안전' 관련 소비재

## □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기회/리스크와 관련 업종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에너지 소모 및 환경 취약 업종의 중국 진출은 그간의 정책 변화(규제)로 이미 많지 않으며, 중국내 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목표제 실시와 관련 업종 육성에 따른 시장기회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기회 vs. 리스크/위협) 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출 기업의 리스크 가능성 있으나 그간의 규제로 해당 업종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
  - (관련 업종)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과 서비스업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에너지 절감 관련 소재, 제품(단열재 등), 신에너지 소재·부품(태양열, 배터리, 풍력 등)
    - (환경) 환경 관련 소재 및 부품(수처리, 대기오염 정화) 및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 대외경제정책 관련 기회/리스크와 관련 업종

-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진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어 리스크 보다는 기회가 더욱 커질 전망
  - 그간 대외경제정책 관련 리스크로 빈번하게 거론돼 온 가공무역 규제나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음
  - (기회 vs. 리스크/위협) 가공무역 금지 확대, 일부 수출세 및 잠정 관세 부과, 정책 및 규제의 비일관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돼 왔으나 이번 13.5 계획에 이러한 정책의 강화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방 확대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관련 업종) 소비재, 투자(In-bound, Out-bound), 신무역분야(전자상거래) 등 분야 기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개방 확대 관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개방 확대 및 서비스 개방 추가\*로 중국진출 여건 개선 예상
    - \*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서도 투자·서비스 자유화 확대 예정
  - (기업 해외진출 관련)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장려되고 있어 기존의 서비스 및 부동산 중심 대한국투자가 전분야로 확대 될 가능성
  - (전자상거래) 대표적 신무역 분야인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정비 및 협력 확대\*로 전자상거래 업종의 중국 진출 및 우리 업체의 전자상거래 활용 여건 개선 전망
    - \* 13.5규획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화 노력을 명시하고 있고, 한중 FTA 활용 및 통관 협력 등을 통해 대중국 전자상거래 활용/진출 여건 개선될 예정

## □ 동반성장 정책 관련 기회/리스크와 관련 업종

- 동반성장 전략의 기초는 중산층 확대 및 기회 균등이어서 관련 내수 확대 및 시장 환경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 \*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가능성 감소
- (기회 vs. 리스크/위협) 리스크/위협 보다는 기회 확대 기대
- (관련 업종) 관련 서비스업 및 소비재
  - (서비스) 교육, 의료, 보건 등
  - (소비재) 산아제한 철폐에 따른 유아용품, 안전 용품 및 식품, 웰빙 소비재 등

### <13.5 기획 분야별 기회와 리스크>

분야	정책내용	기회	위험/ 리스크	관련 업종
<b>성장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경제 추진</li> <li>- 내수 기반 확대 및 고도화</li> <li>· 인터넷경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산업 수요 확대</li> <li>- 소비수요 확대,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산업 중국의 추격</li> <li>* 육성산업 대부분 중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홍산업</li> <li>- 전략적 산업</li> <li>- 고급 소비재</li> <li>- 서비스업</li> <li>· “인터넷+”관련 산업</li> <li>- 첨단 인프라</li> </ul>
<b>신형도시화 · 지역균형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도시화</li> <li>· 산업·공간재편+소비기반 확대</li> <li>- 지역균형 전략</li> <li>· 권역/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종 투자 수요 확대</li> <li>- 소비 확대 고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li> <li>- 인프라</li> <li>- 서비스업</li> </ul>
<b>에너지절약 · 환경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유기적으로 통합</li> <li>- 신산업 육성 계기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 환경산업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강화 관련 기업 진출 여건 악화</li> <li>- 정책급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산업</li> <li>- 환경설비, 소프트웨어</li> <li>-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li> </ul>
<b>대외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개방과 국내 산업발전을 연계</li> <li>- 대외개방과 국내 지역발전을 연계</li> <li>- 쌍방향 대외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환경 개선</li> <li>· 특히 서비스업</li> <li>- 수출여건 개선</li> <li>- 대중 투자유치</li> <li>- 제3국 동반진출 여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급변</li> <li>- 신형의 외자 기업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li> <li>- 투자진출*</li> <li>- 투자유치*</li> <li>* 제조·서비스</li> <li>- 전자상거래</li> <li>- 3국 공동 프로젝트</li> </ul>
<b>동반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구제, 양질·공평한 교육·의료·위생 공급, 취업·창업 확대,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 확대</li> <li>- 산아제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확대 및 고도화</li> <li>- 관련분야수요 확대(교육, 의료 등)</li> <li>- 경제사회적 안정성 제고로 진출환경 안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 교육, 의료</li> <li>- 소비재</li> </ul>

\* 자료 : 본문 요약

[첨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업종과 중국의 10대 신성장 육성업종 비교

구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19대 분야	중복여부	중국의 관련 육성업종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 로봇	○	고급 디지털선반 및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	차세대 정보기술
	실감형 콘텐츠	△	차세대 정보기술(조작시스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 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5G 이동통신	○	차세대 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에너지 산업	맞춤형 웰니스케어	○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 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 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신소재

자료 : 13.5규획 건의;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년 3월)

작성자

◆ 중국사업단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KOCHI 16-004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

발행인 | 김재홍  
편집인 | 윤원석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6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44-6(93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